발 간 등 록 번 호
11-B552881-000006-01

제5차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

시민성 교육:
변화를 위한 성인 역량 강화

요약본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국가평생교육진흥원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2881-000006-01

제5차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

시민성 교육:
변화를 위한 성인 역량 강화

요약본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국가평생교육진흥원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2년 출판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펠트브루넨스트라세(Feldbrunnenstraβe) 58,
20148 함부르크, 독일

ⓒ 유네스코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은 평생학습 관련 연구와 역량 강화, 네트워킹 및 출판 업무를 이행하는 유네스코 산하 비영리 연구소로, 특히 성인 평생교육과 문해력, 비형식 기초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UIL의 출판물은 교육 연구자, 기획자와 정책입안자 및 실무자들에게 소중한 자료입니다.

UIL의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총회의 결정에 따르나, 출판물은 전적으로 UIL의 책임 하에 발행됩니다. 유네스코는 UIL 출판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출판물에 포함된 관점, 사실 및 의견은 저자의 것으로, 유네스코 혹은 UIL의 공식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사용된 명칭과 소개된 자료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 당국의 합법성이나 어떤 국가 또는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네스코와 UIL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출판물은 Attribution-ShareAlike 3.0 IGO (CC-BY-SA 3.0 IGO) 라이센스(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igo/)에 따라 Open Access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출판물의 내용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유네스코의 오픈 액세스 데이터베이스(http://www/unesco.org/open-access/terms-use-ccbysa-en)의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riginal title: *5th 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 Citizenship education: Empowering adults for change – Executive Summary.* Published in 2022 by the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요약본 한국어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3
번역 배아영 조미경
감수 김보람, 김형선, 박민선
인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행물 등록번호 : PM2023-21

사진
겉표지
위: © AYA images/Shutterstock
아래: © Arrowsmith2/Shutterstock

머리말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26조가 강조하듯 교육은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의 모든 소녀와 소년, 그리고 – 비록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지만 –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평생학습은 권리일 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불확실성과 환경 및 디지털 혼란을 마주하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사회 결속력과 기회균등, 성평등, 그리고 경제적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발전시켜야 할 문화입니다.

2009년에 처음 나온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GRALE)는 공공 정책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국제 참고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는 회원국들이 유네스코에 협조를 요청했던 성인학습·교육에 관한 벨렘 실행계획(Belém Framework for Action, BFA)이 지난 10년간 실제로 추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5차 보고서(GRALE 5)에서는 몇 가지 매우 고무적인 동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성인, 특히 여성의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아직 더 개선해야 할 영역도 있습니다. 이주민이나 토착민,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 집단이나 소수 집단은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고 너무 자주 소외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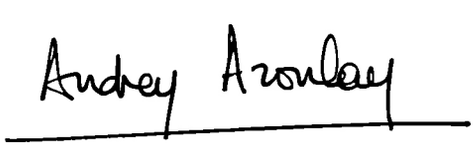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점점 더 많이 인식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평생학습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최고의 공공투자라는 유네스코의 굳건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국가가 국가 교육 예산의 2% 이하만을 평생학습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또한 학습 프로그램의 핵심에 현재의 도전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부제이기도 한 「성인을 위한 시민성 교육」 역시 또 하나의 필수적인 주제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교육이야 말로 차이를 존중하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우며 함께하는 인류애에 대한 인식을 가르치는 동시에 시민 참여를 강화 하기 때문입니다. 본 보고서는 시민성 교육 분야가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네스코가 최근 내놓은 '교육의 미래(Futures of Education)' 보고서에 따라, 본 보고서는 성인교육이 평생학습 문화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난관에 맞설 수 있는 최고의 방편 중 하나로 인정받기를 요청합니다.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릴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I)를 준비하면서, 저는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평생학습의 권리를 발전시키는 데 전념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닥친 난관 앞에서, 교육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이를 위한 공공재로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주요 내용

벨렘에서 마라케시까지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에게 제공하는 것은 성인학습·교육의 지속적인 난제다.

지금까지 성인교육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교육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다. 여성의 참여에서는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지만, 이주민과 토착민 학습자, 노인, 장애인 등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은 계속 학습 기회를 놓치고 있다.

성인학습·교육의 가치는 점차 인정되고 있지만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

회원국에서 성인학습·교육의 경제·사회·시민적 가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성인 교육에 대한 투자는 증가했지만 그 진전은 더디며, 벨렘 실행계획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성인학습·교육이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제 몫을 다 하려면 투자의 규모를 키우고 가장 소외되고 불리한 계층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5차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정책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결과에 대한 검·인증(RVA)과 국가역량체계(NQF) 기제의 확장은 교육제도가 평생학습 체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성인교육 및 비형식 교육이 점점 더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8년 이후 60%의 국가에서 성인학습·교육 정책을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회원국들은 문해력, 기초 역량, 시민성 등 학습의 전(全)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으나, 시민성 교육 부문에서는 그 정도가 약간 낮았다고 보고했다.

거버넌스

성인학습·교육의 거버넌스는 각국 정부 부처, 지역 당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에 더 많이 공유되는 추세다.

4분의 3에 달하는 국가가 거버넌스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으며, 저소득 및 중상위 소득 국가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 그러한 추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각 부처 간, 민간 부문 및 시민사회 간 제휴와 협력이 강화되고 지방분권을 향한 추세도 확고했다. 그러나 현황점검과 평가가 취약하고 데이터 격차가 지속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재정

대부분의 국가가 공적 재정지원,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과 국제 협력 기구–민간 부문–학습자 본인의 공동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지원모델을 보고했다.

응답국의 거의 절반 가량이 성인학습·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훌륭한 계획이 반드시 실질적 지원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 제약 사항이 생겼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성인학습·교육에 할당된 공적 재원 부문에서는 22개국이 공공 교육 지출의 4% 이상을 성인학습·교육에 쓰는 반면 28개국은 지출이 0.4%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격차가 크다. 심지어 40개국은 성인학습·교육에 얼마나 많은 공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보고했다.

참여, 포용 및 형평

온라인 원격 학습이 확대되면서 성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폭이 넓어졌다.

2018년 이후 성인학습·교육 참여가 늘었다고 보고한 국가가 절반 이상이며, 참여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았다.

여성과 청소년의 참여가 상당히 개선된 반면, 높은 연령대에서는 응답국의 23%가 증가, 24%가 감소를 보고해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수감자, 장애인, 이주민의 참여가 2018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한 국가는 약 60%이다.

양질의 교육

성인교육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사 연수와 전문성 기준의 개발은 교육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교육과정의 품질, 평가 및 성인교육자의 전문성 부문에서 진전을 보고했다. 3분의 2 이상은 고용 조건과 더불어 성인교육자의 입직 전 교육(pre-service training) 및 직무연수(in-service training)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지만, 권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성인학습·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

제5차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GRALE 5)는 2018년 이후 시민성 교육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회원국들은 시민성 교육을 향한 정책적 관심이 3년 전(GRALE 4)보다 커졌다고 응답했다. 4분의 3에 가까운(74%) 국가가 시민성 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성 교육은 전 세계가 당면한 난관에 대처하는 핵심 수단이다.

전쟁이나 환경 재난을 피하기 위한 대규모 이주, 기후변화, 디지털화와 같은 당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류애의 공유 및 인간 이외의 종과 지구에 져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인식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비판적인 시민이 필요하다.

성인학습·교육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궤를 같이 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보고서의 각국 조사 결과는 성인학습·교육에 담겨있는 세계 시민성과 지속가능발전 간에 동시효과(시너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성인학습·교육의 교육과정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 환경 보호의 특정 사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코로나19가 성인학습·교육에 가져온 변화

대부분의 국가가 온라인/디지털 및 원격 학습(텔레비전, 라디오 및 전화 포함)으로 빠르게 전환하거나 대면 학습 방식을 수정했다고 보고했다.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수백만 명이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성인학습·교육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과 규정을 도입하거나 교육 품질 기준 및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등 혁신적으로 위기에 대응한 국가가 많다.

하지만 일부 권역과 인구 집단은 이번 위기를 통해 더욱 뒤처지게 됐는데, 이는 자원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서문

성인교육과 시민성: 잃어버린 조각

제5차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GRALE 5) 초안이 작성되는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은 자신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다. 전염병 대유행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다방면에서 나타났으며, 양질의 공교육 및 비형식 교육에의 접근성에 있어서 심각한 불평등을 노출시켰다. 코로나19는 또한 상호 연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불평등과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사회와 경제, 문화생활에 엄청난 혼란을 겪었던 지난 2년을 뒤로 하면서, 우리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인류가 단기 위협에 대응하여 적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염병 대유행은 정치에 대한 불신, 분열과 양극화를 야기하는 정보통신기술(IT), 편을 가르는 다툼의 지속, 국가 내부 및 국가 간 불평등 심화 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많은 단층들을 드러내기도 했다.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보고서가 사용한 설문조사는 2018년에 나온 제4차 보고서 이후의 발전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성인학습·교육의 제공에 있어 전염병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엄청난 변화를 탐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설문조사는 성인학습·교육에 대한 코로나19의 초기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포함하였다. 대부분의 국가가 온라인/디지털 및 원격 학습(텔레비전, 라디오 및 전화 포함)으로 빠르게 전환하거나 대면 학습방식을 수정했다고 보고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규정을 도입하거나 품질 기준, 교육과정 및 평가 방식을 조정했다. 또한 전염병 대유행으로 물리적인 학습 공간이 폐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 학습을 가로막는 디지털 격차도 드러났다.

제4차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GRALE 4)는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배우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즐기며,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즉 능동적인 시민이 되는 데 있어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실시된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는 성인교육 정책 입안자들이 능동적 시민성과 공동체 결속의 문제를 대체로 무시했음을 보여주었다. 제4차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의 주요 권고 사항은 능동적 시민성 및 세계시민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더 탐구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 각각의 주제는 시민성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성인교육의 다차원적 관련성

경제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성인학습·교육은 노동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경력 전환 및 재교육 기회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 경로의 생성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교육 시스템의 재편과 연계되어야 한다. 성인교육은 노동 시장,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에 수동적이거나 타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변혁적인(transformative) 학습을 중심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고용 유형이 극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시민생활과 정치 여건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연성과 비판적 사고 및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

높아지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세상에서, 세계시민교육은 개개인이 서로를 돌보고, 다른 관점과 경험을 받아들이며, 이 세상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행동하게 한다. 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서로를 인식하고 생태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동반되고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이란 우리가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해 느끼는 방법을 바꾸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학습자의 연령에 기반한 교육 시스템 및 정책 구조는 21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무의미해질 것이다. 대신 미래에는 학습 시스템의 개방성,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

개요

벨렘 실행계획과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GRALE: 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는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 대중에게 전 세계의 성인학습·교육 현황에 대한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발간되고 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9년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았다. 이 회의에서 도출된 벨렘 실행계획(BFA)은 성인학습·교육의 다섯 가지 핵심 영역인 정책, 거버넌스, 자금 조달, 참여 및 교육의 질에 대한 향후 현황점검을 위한 의제를 규정했다. 2013년 발간된 제2차 보고서(GRALE 2)는 벨렘 실행계획이 평생학습의 기반으로 규정한 성인 문해력에 초점을 맞췄다. 2016년에 발간된 제3차 보고서(GRALE 3)는 성인학습·교육이 건강과 복지, 고용, 사회, 시민 및 지역사회 생활에 미치는 이점을 분석했다. 2019년에 발간된 제4차 보고서(GRALE 4)는 성인학습·교육에의 참여 기회와 장벽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2015년 유네스코 성인학습·교육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RALE)에 정의된 성인학습의 세 영역인 ▲문해 및 기초 역량, ▲계속교육 및 직업역량, ▲인문교양, 대중 및 지역사회교육과 시민성 역량 측면에서의 성인학습·교육(ALE)의 진행 상황을 처음으로 검토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는 정보기술(IT)와 인공지능(AI)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성인학습·교육의 모든 측면, 그중에서도 교육의 질과 참여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는 교육이 여전히 학습의 질을 주도하고 있으며, 성인학습· 교육 분야의 교육자를 지원하고 전문화하는 것이야 말로 교육의 질을 지속가능하게 향상(예컨대 학습 결과로 측정)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5차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 설문조사 주요 결과

벨렘 실행계획은 구속력 있는 합의가 아니라 회원국이 '성인학습·교육의 힘과 잠재력에 대한 동력'을 싣도록 돕는 '길잡이'이었다. 벨렘 실행계획은 또한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가 회원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항목도 제시했다.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성인학습·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는 혁신사례 및 모범사례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진전을 평가하는 증거 기반이 된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제5차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의 목적은 ▲ 현황 점검 실행, ▲성인교육의 핵심 주제에 대한 심층 토론, ▲ 2022년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I)의 토대 마련 등 세 가지다.

전 세계의 성인학습·교육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국가가 전문 교육에서 기초문해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성인학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단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성인학습·교육 현장은 지원이 미흡하거나 예산 및 계획 측면에서 등한시되는 경우도 많다. 거버넌스가 분열되고 재원이 분산되어 있어 누가, 무엇을 위해,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5차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 설문조사에서는 몇 가지 중요하고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디지털 혁명에 힘입어 그간 미지의 영역이었던 원격 학습과 개방형 교육 자원이 교육 정책 및 실천에서 주류로 편입되면서, 성인학습·교육의 제공은 전 세계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다. 성인학습·교육은 더이상 유소년기에 뒤처진 사람들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취급받지 않는다. 이제 성인학습·교육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이는 단지 급격한 기술 및 사회 변화로 인해 재교육과 숙련도 향상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능력이 곧 21세기의 궁극적인 역량이기 때문이다.

제5차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은, 비록 대부분의 국가는 벨렘에서 설정한 비전을 실현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대부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벨렘 실행계획(BFA)에 명시된 다섯 가지 지표 모두에서 각국은 상당한 진전을 보고했다. 또한 본 보고서와 이전 보고서의 데이터를 통해 진행 속도가 더딘 항목에서도 장애요인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정책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국가 자격 인증 체제 및 비형식 학습의 검·인증 시스템과 같은 정책이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 전 세계의 교육 시스템은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일부 영역은 여전히 등한시되고 있는데, 특히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성인학습·교육 기회의 제공이 그러하다. 시민 교육은 더는 성인학습·교육 커리큘럼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74%의 국가가 시민 교육과 관련된 특정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거버넌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학습 · 교육 거버넌스의 탈중앙화(decentralization)가 점점 진행되어 이제는 시민사회 및 개발협력기구와 같은 비국가 이해관계자(non-state stakeholders)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한 현황점검 및 평가를 비롯한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성인학습·교육 방식의 엄청난 다양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각국 정부는 모두를 위한 성인학습·교육을 만들기보다는 사회적 포용 및 취약계층의 자율권과 같은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성인학습·교육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재정

성인학습·교육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 규모에는 국가 간에 큰 격차가 있다. 22개국은 성인학습·교육 지출이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4%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지만, 가장 지출이 낮은 19개 국가는 그 비중이 0.4% 미만이라고 보고했다. 40개 국가는 성인학습·교육에 할당되는 공교육 지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공적 자금, 공공-민간 협력과 국제 협력기구, 민간 부문 및 학습자 본인의 공동 자금을 포함한 다양한 자금 출처와 모델을 보고했다. 거의 절반의 국가가 성인학습·교육에 대한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 포용 및 형평

재정지원은 양질의 교육을 위한 핵심 동인이며, 이는 곧, 참여의 주요 동인이기도 하다. 2018년 이후 성인학습·교육 참여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온라인 원격학습의 확대 때문이다. 참여 증대의 다른 동인으로는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에 맞게 조정되고, 현지 언어로 제작된 자료가 포함된 보다 관련성 높은 커리큘럼이 있다. 여성의 참여가 가장 크게 향상되어 56%의 국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49%의 국가가 청소년층의 참여 증가를 보고했으며, 4분의 1미만의 국가가 노인(23%)과 토착민(24%)의 참여가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약 60%의 국가는 2018년 이후 수감자, 장애인 및 이주민의 참여에 변동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24%의 국가는 2018년 이후 성인학습·교육에서 노인의 참여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양질의 교육

양질의 교육을 규정하는 핵심 지표인 더 적합도 높은 커리큘럼, 더 잘 훈련된 유급 교육자, 향상된 평가 방법 및 더 유연한 접근 방식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진전을 보고했다. 조사에 응답한 국가의 4분의 3이 교과과정 및 학습 자료,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해 성인학습·교육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제5차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 및 시민성 교육

제5차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 조사 데이터는 시민성 교육의 개념이 국가마다 상당히 다른 용어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성인학습·교육 커리큘럼이 시민성 교육, 비판적 사고, 환경 보호, 인권 및 미디어 문해 등 시민성 교육과 일치하는 요소와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비록 각국이 시민성 교육에 대한 공통된 정의와 이해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2012년 글로벌교육협력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출범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성인학습·교육 커리큘럼은 '세상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인본주의로 가는 길

시민성이란 무엇인가?

서로 다른 법과 문화, 역사의 전통에 따라 시민성은 서로 경쟁하는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시민성을 위로부터 부여된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시민성을 아래에서부터 요구해야 한다고 여긴다. 또 일부는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일부는 책임에 중점을 둔다. 시민성 정의에 대한 영향력 있는 연구에서 마샬(T.H. Marshall[1])은 시민, 정치, 사회의 세 가지 핵심 범주로 그 개념을 정의했다. 시민 요소는 언론, 사상 및 종교의 자유,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정치 요소는 정치 기구의 구성원 또는 그러한 기구의 선거인으로서 정치 권력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 요소는 기본적인 경제 복지와 안전에 대한 권리, 사회적 유산을 공유할 권리, 그 사회에서 마땅한 기준에 따라 살 권리를 수반한다. 재산은 더 이상 시민성의 전제 조건이 아니지만, 정치와 사회의 영향력은 여전히 대부분 부(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동적인 세계 시민성을 바탕으로 기득권 위주의 사회 구조를 포스트 성장 시대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데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 보아야 한다.

시민성 교육과 성인학습·교육

지식과 태도, 역량 및 행동의 차원에서 성인학습은 성인이 교육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노동권과 지역사회 참여권과 같은 기타 시민권을 인식하고 요구하고 향유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성인학습·교육은 본질적으로 권리 중심적이며, 그 내용은 명백하게 인권 교육과 연결되어야 한다. 시민성 교육(citizenship education)은 '시민 교육(civic education)'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즉, 시민권과 책임에 대한 지식과 비판적 이해, 시민의 양성, 사회·경제·정치적 미덕의 배양, 변혁적인 대화와 협상 및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시민성 교육은 성인학습·교육의 주요 영역과 교차된다. 성인교육은 전통적으로 학습자 개인의 경험을 귀하게 여기고, 적극적인 학습과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자기주도 학습과 지식의 공동생산을 지원한다. 이러한 측면은 학습자 중심적이고 과정학습 중심적이며 집합적·협동적·협력적인 학습 과정을 갖는 일반적인 평생학습의 특성과 연결되어 있는 시민성 교육의 성격을 규정한다.

세계시민교육

세계 시민성은 국가 시민성의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 시민성은 전 세계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라는 민주적 사회 협약을 강화하고,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 원칙에 입각한 시민성 모델에 또 다른 지지층을 만드는 것으로, 전통적인 시민성 모델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세계 시민성은 국가 시민성에 가치(value)를 더한 것이다.

세계 시민성에 대한 발상은 유네스코 설립 초기부터 유네스코 교육 비전의 핵심 요소였다. 이는 1972년에 출간된 포르 보고서(The Faure Report)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1996년 출간된 들로르 보고서 (Delors Report) 「*학습: 그 안에 든 보물*」(*Learning: The Treasure Within*), 2021년 출간된 국제 미래교육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Education) 보고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a New Social*

1) [역자 주] 토머스 험프리 마샬(Thomas Humphrey Marshall)은 "시민성과 사회적 계급(Citizenship and Social Class)"에서 완전한 시민성에는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시민성이 포함된다는 개념을 주장한 영국의 사회학자이다.

Contract for Education) 등의 3개 주요 보고서에서 개념화되었다.

유네스코는 인권, 환경 문제, 사회 경제 정의, 문화 다양성 등의 네 가지 영역과 관련된 적극적인 시민성을 요구한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가 보다 포용적이고 정의로우며 평화로운 세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가치 및 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변혁적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세계시민교육의 전반적인 목표는 학습자가 '보다 정의롭고 평화롭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2)]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주제

본 보고서는 성인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주제를 탐구한다. 더불어 성인학습·교육의 다면적 특성에 대한 통찰도 제공한다.

시민성과 문해력

프레이리(Paulo Freire)가 문해를 '세상과 글을 읽으려는 노력'이라는 인상적인 표현으로 설명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 자신의 마을과 지역사회를 넘어 세상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 과정은 '학습자들이 세계 문제를 대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및 세계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역량 기르기'라는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3)]

문해학습이 시민성의 긍정적인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유네스코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현황보고서』(UNESCO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 2006)는 성인 문해 프로그램 참여와 문해 실행이 자존감 향상, 역량 강화, 창의성 및 비판적 성찰과 같은 효과도 거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이번 보고서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의 거의 4분의 3은 문해 프로그램이 적극적인 시민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보고했다.

시민성 교육과 이주민

세계시민교육은 이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추 역할을 한다. 이는 ▲관용과 연민의 정신으로 이주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민교육, ▲낯선 문화와 사회 정치 규범에 적응하고 새로운 조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이주민을 위한 시민교육, ▲ 이주민 공동체 내의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의 세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성 교육은 국민 통합과 국제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의식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다중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역량을 길러준다.

시민성 교육과 신기술

디지털 시대는 능동적이고 세계적인 시민성을 만드는 조건에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뒷받침하는 이 사회의 정보와 자원 및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민들의 사회 참여 능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나타났다. 신기술이 시민권 및 시민 참여를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이를 강화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기반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시민성 교육에서든 다른 형태의 성인학습·교육에서든 성인의 참여를 위해 상황에 맞는 디지털화된 학습 자료는 꼭 필요하다.

---

2) 유네스코, 2014. 글로벌 시민교육: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online] Paris: UNESCO, p. 15.
출처: (원문)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27729/PDF/227729eng.pdf.multi〉.
(우리말 번역) https://gcedclearinghouse.org/sites/default/files/ebook_files/2/index.html#/1

3) 상동

시민성과 젠더

정치와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 제도 및 과정에서 여성은 여전히 충분히 대표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세계 시민성의 중심 목표는 여성을 자율적인 시민으로 인정하면서 여성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성 교육은 모든 성별을 변화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세대 간 학습 파급력이나 이점을 이해하고, 시민권 가치의 복잡성에 관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토착민

최근 수십 년 동안 토착민 주민이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역점을 둔 방향은 토착민들의 동화에서 민주적 포용과 참여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이전 정책으로부터 개선된 것이지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토착민 정체성을 조화시켜야 하는 새로운 과제도 나타났다. 토착민 공동체들은 또한 지역과 세계적인 발전, 특히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점점 더 인정받고 있다.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4])와 우분투(Ubuntu)[5] 같이 토착 세계관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개념들도 지속가능성과 세계 시민권에 대한 담론에서 언급되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고 성인학습·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지구에 대한 배려를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 토착 지식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은 타인이나 미래 세대, 그리고 지구에 대한 우리 책임의 일부이다.

성인교육자의 시민성 교육

교육자의 전문화와 연수는 양질의 교육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벨렘 실행계획은 '교육자들을 위한 전문화와 연수 기회 부족이 양질의 성인학습·교육 제공에 달갑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6].'고 기술했다.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에서 교육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교육자의 주된 역할은 지도자와 촉진자가 되는 것이며, 학습자가 비판적 의문을 갖도록 장려하고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지식과 기술, 가치 및 태도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7] 그러므로 성인교육자은 시민성 교육 환경을 안전하고, 포괄적이며, 효과적으로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성인교육자의 전문성은 특히 소외되고 불우한 사람들의 참여와 관련하여 더욱 개발되어야 한다.

고등교육과 시민성 교육

고등교육기관이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기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고등교육에서는 세계시민교육과 시민 참여가 형식 교육과 학문 연구라는 전통적인 임무에 이은 '제3의 임무'로 여겨졌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지역 프로젝트와 자원봉사, 세대 간 학습 기회, 문화 행사 및 문화 기관과의 협업, 경제 개발 활동 및 지역 기업의 후원, 그리고 시민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3의 임무와 시민성 교육에 기여하는 정도는 교육기관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데, 일부 권역은 고등교육에서 시민성 교육의 역사가 오래되지만, 다른 권역에서는 역사가 짧은 새로운 현상이다. 고등교육기관이 세계 시민성과 시민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3의 임무에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세 가지 주요 임무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4) [역자 주]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 에콰도르의 케추차어로 "충만한 삶"을 의미함.

5) [역자 주] 우분투(Ubuntu):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 성공회 대주교가 주도한 인종 차별정책 철폐의 뿌리가 됨.

6) UIL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0. *CONFINTEA VI, Belém Framework for Action: Harnessing the power and potential of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for a viable future.* [online] Hamburg: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p. 13. Available a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87789〉

7) UNESCO, 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online] Paris: UNESCO, p. 51. Available a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2993

시민성 및 고용가능성

능동적인 시민은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능동적인 시민의 역량은 그들의 고용가능성 역시 크게 높인다. 예를 들어 적응력이나 창의력, 학습 능력, 자기 성찰과 같은 인지 및 메타인지 역량은 고용주들이 높이 평가할 뿐 아니라 시민 참여에도 기본이 된다. 시민 역할 수행에 필수적인 의사소통과 협력 역량 역시 하나 이상의 언어에 기반한 집중적인 의사소통과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협업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의 일터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적극적이고 세계적인 시민성이란 개인이 자신을 인지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복잡하고 막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임을 뜻한다. 또한 문화 차이에 민감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고, 윤리에 맞게 스스로 처신할 수 있다는 것도 뜻한다. 이는 역동적이고 유연하며 협업이 필요한 오늘날의 일터에서 점점 더 요구하는 역량이기도 하며, 결국 직원들은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을 갖는 동시에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그러한 능력을 육성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성인학습·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역할

세계 시민성 개념은 시민성의 더 폭넓은 이해를 위한 변화를 의미한다. 시민의 행동 영역이 한 국가와 지역에 국한되었던 고전적 관점의 시민성은 이익 공동체를 만들고 그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게 만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 쓸모없게 되었다. 정보기술의 영향력은 마을에서부터 대도시까지 복잡한 공급과 수요 사슬로 인간 공동체를 연결하는 세계경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세계적인 난관의 출현,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가능하게 된 인간의 물리적 이동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책임과 보살핌이라는 고전적인 시민성의 가치는 각국 국민과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 미래 세대, 모든 종과 지구 자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를 통해 성인학습·교육 안에서 세계시민성과 지속가능발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성인학습 및 교육의 커리큘럼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전체적인 주제보다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보호와 같은 환경 보호의 특정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4.7에서 '모든 학습자는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다른 요소들과 더불어 여기에는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증진, 세계 시민성 및 문화 다양성 인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공헌 등에 관한 교육이 포함된다' 면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세부목표 4.7은 교육의 인본주의적 비전을 촉진하고, 이를 정책이나 프로그램, 커리큘럼 및 교사 교육에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평화, 사회 결속,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문화 및 교육에서의 문화적(문화간)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SDG 4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생존 위협을 포함하여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태도 및 가치를 개발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평화와 사회 결속, 세대 간 연대, 사회 이동성 및 정의를 함양하는 데 있어 인본주의적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다. 세부목표 4.7은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평생학습을 명시적으로 연결함 으로써, 지구라는 행성과 인간과 번영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방법은 교육을 통해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장 인간다우며 인간적인 가치가 발현되게 해 줄 시민성을 육성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의 시민성 교육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는 능동적 시민성 개념이 성인교육 시스템에 어떻게 수용되어 왔으며, 세계시민교육이 유네스코가 주창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의 교육에 어떻게 들어맞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는 중요한 기회다. 유네스코의 '교육의

미래 보고서'(The Futures of Education)[8]는 이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해 '인권에 근간을 두고 차별금지와 사회정의, 생명 존중, 인간 존중 및 문화 다양성의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돌봄의 윤리와 호혜주의, 연대를 포괄해야 하고(p.iii)', '우리를 단결시켜 집단적 노력에 동참하게 만들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정의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혁신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p.2)'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 시민성과 지속가능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 교육의 혁신 역할을 강조하며, '노동 시장 또는 환경의 변화에 수동적이거나 순응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혁적인 학습을 중심으로 재개념화 되어야 한다'고 적시한다(p. 114–115).

본 보고서가 개괄한 세계 시민성의 비전은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일치한다. 본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성인학습·교육이 능동적 시민성이나 정치적 목소리, 사회 결속, 성평등, 다양성 및 관용에 강력하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선(common good)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인학습·교육은 보건이나 복지, 고용 측면에서 학습자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인학습·교육의 그러한 기여는 명확한 정치 공약과 효과적인 성인학습·교육 정책, 그리고 적절한 자원 제공뿐 아니라 교육의 질과 형평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최대한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성인학습·교육에 있어 여전히 가장 큰 난관은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에서 이미 탄탄한 교육 기반을 갖추고 수입이 많은 사람들의 성인학습·교육 참여도가 가장 높은 반면, 교육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은 사람들은 참여는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과적으로 성인학습·교육 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와 이전 보고서들은 전반적인 교육 참여율이 상승하고 특히 여성의 참여율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준다. 본 보고서는 성인학습·교육을 단순히 가능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성인학습·교육은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인구 집단에 접근가능하고 젠더 감수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여성에게 성공적으로 도달했다는 점은 칭찬받을 만하다. 이제는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이민자나 장애인, 토착민 학습자, 노인, 그리고 무시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8) 국제 미래교육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Education), 2021.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online] Paris: UNESCO.
출처: [원문]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9707〉
[우리말 번역]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1212〉